

생명나눔 불꽃행진 부산본부, 탁발순례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4월 25일 '난치병 없는 행복도시 부산 만들기'란 제목으로 부산 서면 일대에서 탁발순례대장정을 펼쳤다.

이날 생명나눔실천 부산 지역본부의 본부장 원범스님과 부본부장자인 스님, 목종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명이 참가해 서면 일대에서 장기기증을 위한 인식 전환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김해관 환우를 위한 탁발 행진을 진행했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폐색전증과 복강내 종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김해관 환우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감로심장회 이사장 정명 스님, 취임식

(사)대한불교감로심장회 제7대 이사장 취임식이 지난 4월 21일 진주시 상봉동불교회관에서 각 사암 스님, 김재경 국회의원, 진주시 부시장, 진주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제7대 이사장에 취임한 정명 스님(진주 정법사 주지)은 진주교도소 교정교회위원, 진주 불교대학 강의, 경상대학병원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정명 스님은 "특별한 봉사의 소중한 기회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며, "기다리는 봉사가 아닌 찾아가는 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에게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감로심장회는 1990년 심장병 및 기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구원하여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창립된 봉사단체이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월정사 '가정의 달' 10일 천년숲길 오픈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법)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0일, '생명, 평화, 나눔, 그리고 상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월정사에서 상원사 구간 10Km의 숲길을 걷는 오대산 천년의 숲길 옛길따라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장기 기증과 아동보호 서약을 위한 서명, 가족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등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희망의 빛으로 밝은 빛고을”

광주·전남서 봉축 점등식 등 봉축 행사 다채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기원 삼보일배

광주전남봉축위원회(회장 성오·백양사 주지)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기원 삼보일배 등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가졌다.

광주전남봉축위는 4월 25일 아시아문화의전당 앞에서 성오, 정인(광주불교사암연 회장), 영조(송광사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영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점등한 이 불빛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봉축위는 점등식에 앞서 광주의 중심가에서는 티베트의 평화와 안녕을 발원하고,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삼보일배 행사를 가졌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이 의식에는 지역 사암스님들과 포교사단, 청년회, 대불련 및 일반시민 300여 명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4월 25일 광주시내에서 열린 '201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유치기원' 삼보일배 행사 장면.

군부대 호수 가득 연등불 밝혀

전북봉축위 35사단서연등제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금산사 주지)는 1일 육군 35사단 총경부대내 세병호에서 '나라와 겨례를 위한 연등제'를 봉행했다. '병장기를 씻어 다시는 쓸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은 세병호(洗兵湖) 주변에 1천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가운데, 봉행된 이날 연등제에는 원행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법운 스님, 익산 송림사 주지 지광 스님, 35사단장 전동운 소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전주 바라밀합창단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성을 닦아 먼저 자기 자신이 태양처럼 빛나는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이웃을 불보살처럼 존중하며 정성을 다하여 남편은 부처가



5월 1일 육군 총경부대내 세병호에서 열린 연등제.

되고 아내는 보살이 되고 자녀들은 선재동자가 되는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동운 35사단장은 "불교는 호국 불교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왔다"며 장병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인격수양에 앞장서 준 전북지역의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연등제에 동참한 대중들은 오색 영통한 연등이 수놓은 세병호 주변을 돌며 나라의 안녕과 겨례의 번영을 다짐하며 전북 발전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 유행문화재 동화사 대웅전 1563호 보물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근무)은 4월 28일 '대구 동화사 대웅전'을 보물 제 1563호로 지정했다.

대구시 유행문화재 제10호였던 '대구 동화사 대웅전'은 493년 신라 보조 화상이 유가사로 창건하고, 772년 신라 심지왕사가 재창해 사명을 동화사로 개칭했다. 이후 수차례 중창이 있었고 현재 법당은 172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증명했다.

'대구 동화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평면에 외3출목, 내5출목 다포계 겹처마팔작지붕 건물로 배면 쪽 기둥은 자연곡재를 사용했고, 공포는 앙서형 제공, 내부쪽은 단부에 연봉을 조각해 장식한 조선후기의 전형적 전통양식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전남 유행문화재 제61호 '동화사대웅전'과 명칭 혼란 우려가 있어 '대구동화사대웅전'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우리도 이제 스님이에요”

홍법사, 동자승 삭발수계식 봉행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4월 29일 홍법사 대웅전에서 '제4기 동자승 동자승(6명) 단기출가 삭발수계식'을 봉행했다. **수계 후 21일간 동자스님들은 부**

모들과의 만남은 일체 금지되며 새벽예불 및 사시, 저녁 예불 그리고 매일 발우공양에 참가한다. 환계식은 12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 **하성미 기자**

초의문화제 ‘초의상’ 수상자

윤병상·이혜자씨 선정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범각·윤형식)'는 제17회 초의문화제 '초의상' 수상자로 한국문화연구원 윤병상 고문과 한국문화학회 이혜자 부회장을 각각 선정했다.

집행위원회는 한국문화연구원 윤병상(75·연세대 명예교수) 고문을 선정하며 "한국차인연합회 창립 발기인 및 초대 이사로 <다도고전> 등 차 관련 저서와 논문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고 대학 강의를 통해 초의선사의 다도 정신을 전승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지문

화협회 이혜자(70) 부회장에 대해서도 "차 예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우리 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했으며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해 차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초의상은 <초의집>으로 유명한 초의 스님(1786~1866)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해남시에서 다도정신을 선양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차 문화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올해 시상식은 4일 해남 대흥사에서 열렸다. **김강진 기자**

행복한 5월, 부처님의 환한 지혜를 들려주세요

취학전 아동, 저학년 추천

1. 동양의 이솝우화, 백유경 시리즈

[백유경시리즈 1] **강대, 화가**
최기민 글·박지매 그림 | 36쪽 | 9,000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 [백유경시리즈 2]
최기민 글·혜경 그림 | 40쪽 | 9,000원

불교교리를 우화로 재미있게 풀어 쓴 책 마르지 않는 샘처럼 부처님의 즐거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학년 추천

2. 아이들을 위한 부처님 일대기

우리에게오신 **부처님**
이슬기 글 | 스튜디오들 그림 | 172쪽 | 9,800원

애들이, 절에 가자
홍주연 글 | 이경택 그림 | 160쪽 | 9,000원

절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신기하고 재미있는 보물이 가득한 곳!

(에스24)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인터파크)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교보문고)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우리나라 절의 아름다움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책”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경찬 글·사신 292쪽 | 12,000원

전국 사찰의 유·무형 불교문화와 문화재를 상세하게 소개한 책 -동이일보

이번 책은 10년간 100여 사찰을 답사한 저자의 성과물이다. -조선일보

고찰은 문화재의 보물창고다. 궁금한 것도 한 돌이 아니다. 이 책을 보노라면 의문점이 저절로 풀리면서 불교가 가까이 다가온다. -세계일보